

“올해도 빈통”...꿀벌 집단소멸에 양봉농가 낙심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꿀벌 집단 소멸 현상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에서 양봉업에 종사중인 1300여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고돼 양봉업계는 물론 화분 매개용 꿀벌을 이용하는 시설원에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꿀벌 기생충인 ‘응애’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2일 한국양봉농협에 따르면 최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3182명의 조합원 가운데 78% 이상이 꿀벌 소실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를 따지면 전체 사육 규모의 63%에 해당하는 벌이 사라진 셈이다.

**전국 양봉농협 조합원 78% 피해
전년 폐사율 30%→올 70% 전망
응애방제 교육·방제약 지원 절실
“재해지정·농가지원책 서둘러야”**

해남군에서 양봉을 키우고 있는 김상재(62)씨는 40여년 간 양봉업에 종사했지만 올해 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보통 지금쯤이면 곧 입춘(2월 4일)을 앞두고 월동에 들어갔던 벌들을 깨워 시설 하우스로 보낼 준비를 마쳐야 할 때”라며 “하지만 벌통을 열어보면 벌이 줄어 있거나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어 막막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맘때면 1개 소비에 4000마리 꿀벌이 들어 있어야 한다. 올해는 4000마리는 커녕 3분의1도 못미치는 정도의 벌만 들어 있다”며 “작년에도 갑자기 많은 벌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올해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도 절반에 가까운 꿀벌을 잃었던 김씨는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 농사까지 망쳤다는 생각이 든다. 봄까지 지금 상황이 이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꿀벌 집단 소멸 현상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양봉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성군 북이면에서 양봉업에 종사하는 이재영씨가 텅빈 벌통을 보여주고 있다.

어진다면 내년 농사는 접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어려운 상황을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꿀벌 전체 봉군 수 270만개 가운데 적게는 50%, 많게는 60~70% 이상의 피해가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피해 규모의 30% 내외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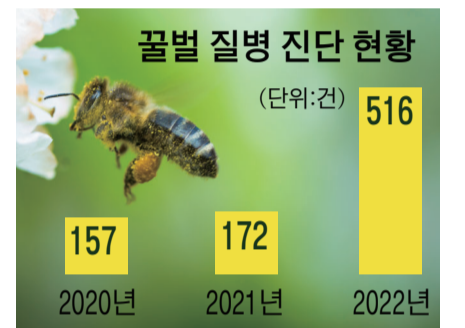
한국양봉농협 관계자는 “현재 전국 각지 양봉농가로부터 피해 현황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그 건수가 훨씬 많다”며 “현 상황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봉군에 투입된 의약품에 대한 내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우선적으로 꿀벌 기생충인 응애 관리를 중

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꿀벌에 피해가 적고 양봉산물에 잔류가 없거나 적은 친환경 꿀벌 동물용 의약품 개발이 시급하다”며 “당장 양봉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양봉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번 소멸 피해를 시급히 재해로 지정해서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각성을 인지한 자치단체는 발빠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진군이 지난해 11월 월동 전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전후 소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군은 유밀기까지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 된다면 봉군 붕괴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이에 따라 지난해 강진군은 꿀 생산량 급감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이 최소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희생지원금 11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이번 월동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꿀벌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동 꿀벌 피해 대책반’을 꾸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양봉피해 상황만 지켜보더라도 지난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꿀벌 소멸 현상의 경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수준을 파악한 뒤 월동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이번 달 말~내달 초까지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지 기자

영암 옥야리 고분서 ‘인골’ 출토...마한시대 혈연관계 규명 기대

**옹관묘 7기, 목관묘 1기, 장신구 등도 확인
19호분 출토 인골과 비교해 친족관계 유추**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고분에서 ‘인골’이 출토돼 마한시대 혈연관계 규명에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17호분 발굴조사 결과, 옹관묘 7기와 목관묘 1기, 매납토기 6기, 인골, 유공광구소호, 장신구, 이식, 금속제고리 등이 확인됐다.

옹관묘는 목관묘 옆으로 대부분 남북방향으로 ‘U’자형의 대형옹관을 이용해 합구식으로 횡렬 안치된 형태로 발견됐다. 편평한 석재를 이용해 입구를 막은 후 회백색점질토로 밀봉한 형태의 단옹도 2기 확인됐다.

봉분 내에서 인골이 출토돼 과학적 분

석(DNA·탄소동위원소측정·절대연대측정 등)을 통해 고대 마한인 유전적 특징 등 정보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인된 19호분의 출토 인골과의 비교를 통해 고분 간 친족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대 마한의 대형고분은 ‘아파트형 고분’이라 한 고분(분구)에 석실묘, 석곽묘, 옹관묘, 토광묘 등 여러 개의 매장시설이 다장(多葬)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출토되고 있는 유물은 금동관모, 금동신발, 환두대도, 마구류와 유공광구소호와 같은 토기류, 다양한 재료와 색상을 지닌 옥류 등으로 당시 사회의 권력과 부를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고분군에서 최근 ‘인골’이 출토돼 마한시대 혈연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학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암군 제공

상징하는 물건들이 부장된 양상을 보인다.

군은 옥야리 고분군을 통한 마한문화

규명과 복원 및 정비, 사적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옥야리 고분

군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옥야리 17호분 발굴로 얻어진 자료가 향후 영산강유역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옥야리 고분군과 영암 일대의 방대형고분 간 비교를 통해 각 고분 간 선후관계, 혈연관계, 지위관계와 당시 문화 등을 규명하고 마한 중심지로서 역사를 밝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 옥야리 고분군(전남도문화재자료 제140호)은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576-4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4-6세기 조성된 고분군으로 마한문화를 계승한 영산강 고대 세력 핵심 거점 중 한 곳으로 주목되는 곳이다.

옥야리 고분군 주변에는 당시 최고 권력층 내지 귀족층 무덤인 영암 내동리 쌍무덤, 옥야리 방대형고분, 신원리 고분군 등이 분포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